

광주시교육청, 전 학년 등교 시작에 “안전한 학교 만들기 최선”



1 2학기 시작을 앞두고 교실을 소독하고 있다. 2 장휘국 교육감 3 다시 등교하는 학생들

2학기부터 전 학년 등교수업이 시작되면서 광주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학교 규모에 따라 모든 학교에 2~6명의 방역 인력 1천500여 명을 지원해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고 나섰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학교에서 감염병이 발생하면 현장지원팀·방역대응팀·학교지원팀을 순차적으로 가동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배움터를 조성하고 있다. 특히 단위학교에 '심리방역지원단'을 구성해 코로나 확진자와 2주 자가격리에서 복귀한 학생들의 위기 심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학교 현장 밀착형 지원을 통해 학교 폭력도 줄인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관계 회복을 위해 각 교육지원청에 관계회복지원단을 구성해 학교를 밀착 지원한다. 또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보호형 피해 학생 전담 기관인 '지세움'을 전국 최초로 설치해 아이들의 다친 마음을 돌보고 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학교 교육력 회복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교육 회복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의 학력과 정서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대응하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초등학교 기초학력 부족 학생을 지원하는 '두드림학교'를 확대하고, 맞춤형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한다. 학생과 교사의 관계와 사회성 회복을 위해 학습운영비를 증액 지원하고, 실습이 축소된 특성화고교를 위한 취업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문화 학생들의 경우 지역 다문화 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방문 서비스를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찾아온 교육 대전환기에 맞춰 '미래 교육'을 도입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 스마트스쿨'과 연계한 광주형 친환경 미래학교를 구축하고, 학생이 자기 주도로 대면·비대면 연계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미래이음학교'(광주형 스마트스쿨) 운영을 확대했다.

학생·학부모·교직원이 3D프린터, 드론, 사물인터넷, 가상현실(VR)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융합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인공지능 체험센터'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지나해 신설된 '기후환경협력팀'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학교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실현을 위해 그린에너지 전환 실천 교육도 시행하고, '학교 햇빛 발전소·에너지 전환 학교 협동조합' 설립에 나서고 있다.

장휘국 교육감은 “미래사회는 서로 협력하고 다양하게 사고하면서 지식을 폭넓게 활용할 줄 아는 인재를 필요로 한다”며 “우리 아이들이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핵심역량을 키워 스스로 자기 진로를 설계하고, 희망의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2021년 청렴슬로건 공모전 최우수작(일반부문)



광주교육의 '날씨는
오늘도 청렴 :)

광주광역시교육청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